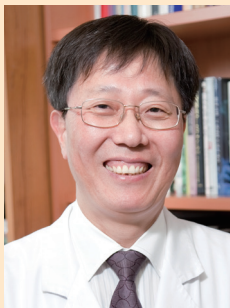


에이즈 관련분쟁과 제약회사의 윤리

글 이재담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1980년대 초에 세계 의학계를 뒤흔든 에이즈는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밝혀지기 전에 이미 섹스나 수혈 혹은 혈액제제를 통해, 또는 임신 중 산모로부터 태아에게 옮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다. 이 감염 경로의 고리를 끊음으로써 에이즈 확산을 막으려고 애쓰던 의료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법의 개발이었다.

미국의 갈로가 프랑스의 몬타니에가 처음 발견한 바이러스를 사용하여 마치 자기가 가장 먼저 에이즈 바이러스를 발견한 것처럼 논문을 쓰고 진단법을 개발했다는 ‘연구 부정’ 사건은 지난 겨울호에서 언급했지만, 경과야 어쨌건 세계 최초로 상업화된 갈로의 에이즈 진단 키트에는 엄청난 특허 사용료가 걸려 있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히 연구 부정이라는 문제를 떠나 미국 대 프랑스의 학문적 자존심과 경제적 이익이 걸린 다툼으로 발전했다.

프랑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바이러스가 원래 파스퇴르연구소의 것이었으므로 그로 인한 수입도 당연히 최초 발견자인 몬타니에 팀에게 귀속돼야 했다. 1985년 12월 파스퇴르연구소는 미국연방방법원에 특허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갈로가 개발한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법을 인정하지 않는 강경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프랑스가 발견한 바이러스를 훔쳐간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이익을 챙겨가는 것을 금지했다(이후 프랑스는 독자적인 검사법을 개발하지만 개발 기간 동안 프랑스의 혈액제제를 사용한 혈우병 환자들이 다수 에이즈에 감염됐고, 그 중 300명이 넘는 환자가 사망했다).

에이즈 바이러스를 누가 먼저 발견했으며 그에 따른 여러 제품들의 특허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1987년 레이건 대통령과 미테랑 대통령이 직접 만나 정치적으로 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은 바이러스를 두 나라가 공동 발견한 것으로 하고 이익을 반씩 나눈다는 것이었다.

세월이 흐른 후 당시 프랑스가 미국이 개발한 에이즈 혈액검사법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밝혀졌다. 수출용으로 만들어 놓은 자국의 혈액제제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정부가 제약회사들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보관 중인 혈액제제를 전부 검사할 경우 상당 부분 양성으로 나타나 사용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해외 구매자들이 프랑스 제품을 사지 않을 것이 두려워서 미국 평계를 대며 혈액제제에 대한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끈 것이다. 이 스캔들로 프랑스 보건당국자 4명이 체포되어 감옥에 갔지만 사건을 실제로 주도한 고위층이 더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남았다.

그 후 이와 유사한 정황들이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드러났고, 억울하게 에이즈에 걸린 환자와 제약회사 사이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했다. 일본 사법부는 사전검사를 소홀히 하여 환자들에게 에이즈를 옮긴 제약회사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회사의 문을 아예 닫게 만드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영길 교수(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미생물학교실)가 혈액제제로 인한 에이즈 감염을 처음 보고하면서 다툼이 있었으나 수년에 걸친 소송 끝에 환자들이 제약회사로부터 약간의 금전적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했다. 🌐